

# 번역가는 이런 것

## 이런 번역가가 되고 싶다

번역가는 무엇을 번역하는가? 

글 정재곤 (출판기획·번역 전문 네트워크 <사이에> 위원)

세계적인 극작가 사무엘 베케트는 아일랜드 사람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그는 모국어가 영어다. 하지만 베케트는 스무 살 어린 나이에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이래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가 모국어인 베케트가 평생을 파리에서 살면서 영어만큼이나 불어로도 작품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노벨상을 수상토록 해준 불후의 명작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가 애초에 불어로 썼던 작품으로, 나중에 작가 자신이 자기 모국어인 영어로 옮겨서 다시 발표했다. 이 작품 말고도 베케트는 자기가 집필한 희곡이나 소설을 처음에는 불어나 영어로 발표하고, 그런 다음 작가 스스로 영어 내지 불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여러 차례 감행했었다.

어쨌서 베케트는 자기가 쓴 작품을 한 번은 영어 또는 불어로 집필하고, 그런 다음 자기 스스로 불어 또는 영어로 다시 옮기고 싶어 했을까? 자기 작품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게 될 때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서일까? 아니면, 자기 작품을 서로 다른 두 언어로 옮기면서 자기 작품에 깃들어 있는 뭔가를 가늠해 보고 싶어 한 것일까? 아니면, 작품의 '내용' 만큼이나 언어라는 '그릇' 자체에 커다란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닌가? 혹은 또 다른 이유라고 있는 것인가? 어찌 알겠는가. 어느 신문기자가 베케트에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가 대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베케트는 본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고도가 누구인지, 또는 누구일 수 있는지 오히려 알면 자기더러 말해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는 번역에 임하면서 베케트의 경우를 종종 떠올리곤 한다. 예컨대, 베케트가 '똑같은' 자기 작품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로 집필하는 상황을 그려볼 때, 과연 처음에 집필한 '원본'과 본인 스스로 다른 언어로 옮긴 '번역본'이 과연 동일할 것인가에 심각한 의심을 품어보곤 한다. 이 세

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이 그렇듯이, 영어와 불어가 언어적 차원에서만 다를 뿐 아니라 개개의 언어 뒤에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서 축적된 고유의 문화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출신 청년이 제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 백인 출신 미국인들과 적어도 외양으로는 완전히 뒤섞일 수 없는 것과 흡사한 이치라고나 할까. 혹은, 베케트가 집필한 불어본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와 영어본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가 흔히 생각하듯이 동일 작품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도대체 무엇이 동일하다는 말인가? 작품의 내용이나 줄거리가? 아니면, 작품의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조차 같다는 말인가? 혹은, 원본과 번역본이 '대체로' 동일하다고 여전히 가정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두 텍스트는 서로 다를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불어본 《고도를 기다리며》와 영어본 《고도를 기다리며》는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있을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실 이 문제는 비단 번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언어의 본질, 나아가 우리 인간 존재의 비밀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번역(翻譯)은 번역 자체로 머물지 않는다. 글을 매개로 뜨겁게 만나는 원저자와 번역자 사이, 그리고 번역자와 독자 사이에는 언젠든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